

# 거리에서, 불타는 버스에서, 교통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시민 생명 구하다

### 망설임 없이 달려간 간호사들 이야기 지켜본 시민들 제보로 세상에 알려져

지하철과 비행기에서, 공원과 거리에서, 불타는 버스에서, 교통사고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이야기가 올해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간호사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들을 발견했을 때 망설임 없이 달려가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시켰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간호사들의 활약상은 현장을 지켜본 시민들의 제보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2016년을 훈훈하게 해준 의로운 다테이징게일들을 다시 돌아본다.

#### ○...김혜민 분당차여성병원 간호사는 불타는 버스에서 운전기사를 구해 큰 이슈가 됐다.

5월 31일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로 불이 붙은 버스에서 험등에 다리가 끼어 움직이지 못하는 운전기사를 구하기 위해 버스 안으로 뛰어 들어가 응급조치를 취했고, 견인차 기사와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구출됐다. 이 모습을 담은 동영상 인스타그램에 퍼지면서 시민 영웅으로 불렸다. 국민안전처가 수여하는 '2016년 참 안전인상'을 받았다. 넥센타이어와 넥센하어로즈가 펼치는 '이달의 히어로' 캠페인 시구자로도 뽑혔다.

김혜민 간호사는 "내가 버스 승객 중 한 사람이기보다는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로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면서 "다른 분들도 같이 애써주셨는데 저만 알려져 과분한 칭찬을 받은 것 같아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 ○...이연경 양산부산대병원 간호사는 비행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의 생명을 구했다.

6월 24일 제주도행 비행기에서 이륙을 기다리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이 발생하자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해 응급처치를 했다. 승객은 자발호흡이 돌아온 상태에서 공항 응급구조대에 인계됐으며, 치료 후 퇴원했다. 이 상황을 지켜본 탑승객이 병원에 제보해 알려졌다.

#### ○...성경아 이대 목동병원 간호사는 바다에 빠진 시민을 구했다.

8월 14일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찾은 강원도 사근진에서 바다에 빠진 남성 피서객이 해상구조요원에 의해 구조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달려갔다. 심장이 뛰지 않았고 청색증이 진행되고 있었다. 해상구조요원에게 자신이 간호사임을 밝히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 피서객의 가족은 "응급처치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면서 "자기중심적인 요즘 세상에 사명감을 갖고 적극 나선 간호사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성경아 간호사는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꼭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말했다.

#### ○...전보빈, 박솔에 청구성심병원 간호사는 교통사고를 당한 시민의 생명을 구했다.

9월 29일 오전 서울 은평구 연신내 지하철역 교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이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정면충돌했다. 방문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두 간호사는 현장으로 달려갔다. 사고를 당한 남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머리에서 출혈이 있었다.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남성은 의식을 되찾았고, 119구급대가 도착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두 간호사의 사연은 응급처치 상황을 지켜본 모범택시 기사가 병원에 알려와 공개됐다. 청구성심병원은 간호사들에게 표창장 및 포상금을 수여했다. 은평구경찰서에서도 감사패를 수여했다.

#### ○...이가영 충북대병원 간호사는 공원에서 쓰러진 시민을 구했다.

9월 13일 저녁 집 앞 공원을 산책하던 중에 운동하던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모습을 발견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여성은 안면에 출혈이 있었고, 의식 없이 힘들게 호흡을 몰아쉬다 심정지가 발생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119구급대가 도착했고, 제세동기까지 사용한 환자는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이가영 간호사는 "산책 나온 주민들이 휴대폰 불빛으로 환하게 밝혀주는 등 적극 협조해줬기에 신속한 응급조치와 이송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 ○...김명옥 강릉시 주문진보건청장소 방문간호사는 가정방문 중에 주민을 구했다.

11월 23일 김 모 씨의 집을 방문해 있던 중에 평소 심장질환 등을 앓고 있던 김 씨가 남편과 대화를 나누다가 식은땀을 흘리고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의식을 잃었고 호흡이 멎었다.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119구급대가 도착한 후 김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명옥 간호사는 "정기적으로 방문해 돌보던 환자가 생명이 위급해진 순간에 마침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 ○...홍예지 삼육대 간호학과 학생은 지하철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했다.

4월 18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쌍문역에 진입한 열차 객실에서 전 모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심장이 멈춘 상태였다. 이를 목격하고 망설임 없이 객실로 뛰어 들어가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실시했다. 119구급대가 도착한 후 전 씨는 병원으로 후송됐다. 시민들은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냘픈 여학생이 최선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을 보고 감동받았다"고 말했다. 홍예지 학생은 "머리보다는 몸이 먼저 움직였고, 간호대학생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숙현·주혜진·최수정 기자

인/터/뷰

## 프로복싱 한국 챔피언 이민욱 간호사 윌스기념병원 수술장 열혈 새내기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한 사각링을 장악한 챔피언이자 팬광한 긴장감이 감도는 수술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민욱 간호사(27세)를 만났다.

수원 윌스기념병원에 근무하는 이민욱 간호사는 올해 7월 한국권투위원회(KBC)에서 주관한 한국슈퍼플라이급 챔피언 결정전에서 승리하며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프로복싱 선수로는 한국 랭킹 1위 챔피언이지만, 병원에서는 입사 4개월 차 신입간호사다.

이민욱 간호사는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운동을 즐겨했고, 고등학교 때 친구를 따라 복싱을 시작하게 됐다"면서 "비슷한 시기에 남자간호사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큰 매력을 느껴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됐다"고 말했다.

영남이공대 간호대학에 재학 중이던 2012년, 입대테스트를 거쳐 프로복싱 선수로 데뷔했다.

2015년 간호사 면허를 취득했지만, 먼저 챔피언이 되기 위한 준비에만 몰입했고, 성공한 이후 병원에 입사했다.

이민욱 간호사는 "졸업 후 임상경험도 없이 긴 공백 기간을 가진 신입을 흔쾌히 뽑아준 병원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라면서 "처음에는 제가 병원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원장님과 간호부장님 그리고 간호사들 모두가 제가 챔피언임을 자랑스러워 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챔피언 이민욱 간호사는 신

체훈련만큼 정신을 단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매일 잠들기 전 주먹을 꼭 쥐었다 펴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 해낼 것이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생활화하고 있다. 사람이나 수술을 앞두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긴장감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민욱 간호사는 "간호사와 챔피언,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볼 것"이라면서 "능숙한 수술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다음 목표는 동양 챔피언, 최종 목표는 세계 챔피언이다. 최수정 기자 sjchoi@

## 미안마 난민촌에서 희망을 나누다

'미안마 난민을 위한 교육과 노력봉사'라는 테마로 지난 7월 9박10일 일정으로 서울YWCA에서 진행된 '피스 인 아시아'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우리의 첫 번째 활동지는 태국 매홍손에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미안마 난민촌 카안 빌리지.

내가 맡은 역할은 손씻기 교육이었다. 한국에서 출발 전 간호학과 장운경 교수의 조언을 받아 자료를 준비했고,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했다.

교육이 시작되자 학생들의 눈이 내게로 집중됐다. 웃음이 넘쳤고 따뜻했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그들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굵은 상처에 얹어 있는 벌레들, 나이에 맞지 않게 갸름한 턱, 멍든 팔다리, 그것들을 통해 그들의 삶을 짐작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더 많이 배우고 싶어했다. 꼬마친구들이라 울음을 하며 교육을 진행했고, 아이들은 즐거워했다. 함께 웃으며 비누도

만들었다. 교육이 끝난 후엔 꼬마친구들끼리 응기종기 모여 배운 대로 손씻기 6단계를 따라하며 손을 씻었다.

두 번째로 향한 곳은 난민캠프 여학교 WSP(Woman Study Program).

여러 힘든 과정을 거쳐 만난 아이들은 밝고 힘차 보였다. 여학생들이 우리를 반겨주었고, 웃는 얼굴들이 너무 푸르고 맑아 보였다.

여학생들과 함께 '생리주기 팔찌'를 만들었다. 구슬을 하나하나 꿰면서 구슬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다.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생리주기를 왜 알고 있어야 하는지 알려줬다.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통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인사와 함께 교육을 마쳤다.

떠나오는 날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해주었다. "먼 나라에서 우리를 보려고 와줘 너무 고맙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내가 한국

에서부터 고민했었던 '내가 제공하는 것들이 이들에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에 대한 답을 얻은 것 같았다. 서로 교류하며 행복할 시간을 나누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으로 충분했다.

이곳 난민촌에 와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마음이 더욱 애타게 졌고, 이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보고 느낀 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사명감도 생겼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마음속에 있던 따뜻한 불씨를 찾은 것 같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겨진 불씨를 살려주고,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자의 마음속 불씨를 모아 큰 불꽃을 만들어 보고 싶다.



조 대 로 호남대 간호학과 3학년

# 28년 전통 대방열림고시학원

기술직 공무원 (간호직) 보건직 보건진료직 의료기술직 국가면허시험 (간호사국가고사) 위생사 연세대 RN-BSN

## 최다합격자 + 입소문 · 합격생이 적극 추천하는 기술직 명문 학원

2016. 11월 대방열림고시학원 직강 현황 모습



### ★ 대방열림고시학원의 강점 ★

- 과목별 수험생 선호도 1위 교수진 구성
- 매년 기술직 공무원 최다합격자 배출
- 수강생이 가장 많고 입소문으로 유명한 학원
- 학원직장을 그대로 촬영한 최신 동영상 강의
- 최고의 시설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
- 최신 스마트폰 동영상 강좌 시스템
- 체계적인 시스템 및 학원직장 연중 무중단 진행

매일 초개강 / 수시 등록 가능 / 학원강의 연중 순환식 진행  
이론반 > 심화반 > 기출문제반 > 단원별 · 모의고사 문제풀이반

2017 연세대 RN-BSN

오직 연세대학교 RN-BSN을 위한 특화된 강의로 동영상 강의 진행중  
RN-BSN·간호사 국가고시 전문 카페 '천사랑' <http://cafe.naver.com/10rang04>

상담문의 02-823-4700 서울 지하철 1호선 대방역3번출구  
빕스 우측건물(1층 피자헛.2·4층학원)

www.yulimgosi.com